

오피니언

다산포럼

남영신



지금부터 120년 전이었는가? 2030의 젊은이들이 수구와 사대주의로 강하게...

반미가 자주의 표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정권을 안겨 준 세력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 갈등에, 언론과 싸움에, 코드와 낙하산 인사에, 부정과 비리에..... 도대체 이들은...

일부 통일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 시민운동가들, 노동운동가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386을 등에 업고...

시חת말로 조종종이라고 불리는 수구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우리는 언론자유는 386으로 불리는 젊은이들이 복수를 버리면서 정취한 민주...

요즘 전시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부 장관들의 행태는 참으로 고약...

니었는가?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은 국토방위에 써야 할...

일부 보수 논객들도 고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주가 미워서 일본 우익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데 심혈을 기울여 하지 않는지. 어떤 사대주의자는 한국어를 없애고 영어를 모국어...

국정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탄핵 회오리 뒤에 불속 내던진 대연정 제안, 말만 요란한...

이제 다시 우리 선대들이 120년 전에 그랬듯이 수구는 외세에 휘둘리고, 자주와 진보는 배타주의와 원리주의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경기 회복 기대에 못미친 세계 개편안

정부가 21일 '2006년 세계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계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세계 개편안은 '세 경감'이 아니라 세 문제다. "이번 세계 개편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간 플러스이거나...

F1대회 전남 유치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서 등 F1대회 유치를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남도는...

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34개 비과세...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나 소위 '세과라치' 제도 등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제도다.

물론 이번 세계 개편안에서 세계 합리화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자영업자의 세인 노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하지만 분배와 조세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회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가구와 맞벌이 부부 등 430

다. 수도권 특성상 접근성과 공항 및 도로 등 SOC에서 전남과는 비교할 수...

최근의 상황도 전남 유치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전남도는 당초 지난달 FOM측과 조인식을 갖고 F1 대회 개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었다.

전남도는 F1대회 유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회 유치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NGO 칼럼

손준호



그 어느 때보다 비도 많이오고 날씨가 더워진 여름이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대며 전력에너지...

지난 100년간 한국의 연평균기온이 1.5℃상승했으며 기후모델 이용한 기상청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환경 재앙 속 인류가 살아남는 법

량이 늘어나 유희와 같은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며 지표면 열의 지속성이 강화되어 더위는 물론 가뭄도 증가하여 겨울이 단축되는 등 무수히 많은...

문제는 온실가스배출 세계 9위, 이산화탄소배출 증가량 세계 1위(2002)를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가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삶의 편의를 위해 만든 물건, 기계, 전기 등 수많은 도구들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창조와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따라서 우리는 당장 플러그를 뽑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에너지 소비를 급격히 줄이거나 중단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시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플러그를 뽑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에너지 소비를 급격히 줄이거나 중단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시해야한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에너지 담당 활동가>

유명 관광지 됐다... 입장료 징수, 관광객들 기분 '짹짹'

지난 20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보성군 녹차밭에 갔는데, 유명 다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수천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 같았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는 다원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녹차밭이 광고나 영화 촬영 배경 장소로 쓰이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관광지가 됐다고 지금껏 받지 않았던 입장료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짹짹했다.

자신의 땅에 들어오는데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할 말 없지만 여간 섭섭했다.

▲김미연·광주시 서구 품앗이



펠리컨의 여름나기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마솔 더위로 올 여름은 한 발짝도 움직이기 귀찮다.

동물도 그럴까. 자연 속 동물들의 경우 물과 그늘을 자유로이 찾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흙으로 된 우리, 주변 나무가 울창하거나 몸을 담글 수 있는 물웅덩이라도 있는 우리에 있는 동물이라면 그나마 선택받은 셈이다.

사육사를 잘 만나 호감하는 동물들도 있다. 백곰은 가끔 얼음과자를 얻어먹기도 하고, 불소는 사위세례를 좋아하지만 늘상 있는 일은 아니다.

결과 동물원 동물들은 무더운 여름의 내실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거나 운동장 바닥에 뒹구는 게 대부분 일 수밖에 없다.

카다란 부리가 특이한 펠리컨이라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큰 부리를 최대한 벌리고, 뺨굽거리며 혈관의 열을 발산하는 정도다.



또 있다. 사육사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다니면서 여름 보양식 미꾸라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보양식이라도 해결하자는 펠리컨만의 독특한 여름나기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관심 필요

살아 있는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고아' 아닌 '고아'들이 늘고 있다. 연간 1만 여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이른 자립 문제가 더 크다.

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200여 만원의 자립 지원금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의 지속적인 관심과 편견 없는 시선도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원래의 가정을 되돌려 줄 수는 없더라도 대신 새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사회에 멋진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無等鼓

지구상에 현존하는 운동종 가장 힘든 종목은 무엇일까. 마라톤, 철인 3종경기, 레슬링, 권투, 미식축구, 이종격투기? 모두가 아니다.

바로 보디빌딩이다. 문외한들은 수궁하기 어렵겠지만 보디빌딩 선수들은 보디빌딩이 가장 힘든 운동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벌크(크기)에 단단함을 자랑하는 가슴근육, S라인의 미녀하리보다 더 굵게 튀어나온 이두박근(전성기 아놀드 슈어제네는 32인치), 왕(王)자 복근, 남생들이라든 한변쯤 꾸며봤

을 멋진 몸매는 거의 수모승 이상의 청빈한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내와 고통의 산물이다. 보디빌딩 선수들은 음식이라곤 모두 가려먹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스포츠 스타들이 떠올려 지듯 그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악마의 유혹'이다. 그러나 원래 도프(dope)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흥분제를 이르는 표현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악마의 유혹



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적발되면 선수생활을 접도록 영구제명하겠다는 것이다.

악물복용하면 변존슨, 저스틴 게이블린(이상 육상) 베리 본즈(야구), 마라도나(축구), 랜디스(사이클)처럼 세계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떠올려 지듯 그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악마의 유혹'이다. 그러나 원래 도프(dope)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흥분제를 이르는 표현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